

왕곡마을 민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Folk Houses at Wanggok Village

최장순*
Choi, Jang-Soon

조현길**
Jo, Hyun-Gi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idential spatial composition structures of vernacular agricultural village which to be called Wanggok in Yeongdong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backyard of farmhouses is surrounded by a fence and a frontyard is open to the road, so that the spatial realm system from the road to the backyard is classified as public-semi public-private realm. • The plan type of this village is mainly composed of — type Gyeobjib (the two row rooms under one roof) and ⌋ type Gyeobjib, the Anmaru (the inner wood floor to be surrounded with wall) in both of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connects Sarangbang (the men's main room) with Anbang (the women's main room) in the residential space. • The particular item that not found out in another area is the Sarangbang kitchen which located to Sarangbang's side wall to be furnished with a fire hole. • The houses represent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al elements of those built days, such as while Sarangbang is faced on a frontyard to be open to the neighborhood, Anbang is faced on a backyard surrounded with a fence to be closed to the one. • The Gyeobjib with Anmaru appeared by cultural transformation connecting the 田-shaped house of Hamgyeongdo with the Gyeobjib with Anmaru of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 The ⌋ type Gyeobjib is preferred to — type Gyeobjib because of the sea wind and the north-east wind occurring by geographical and climatic environment elements, th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look into a frontyard, the muck drainage of cowshed to make use of ground unevenness, the economic gains called material saving and the intention to enlarge the frontyard as to be concentrated in a residential space and etc.

Keywords : Layout, Plan Type, Residential Space, Spatial Composition, Folk House, Wanggok Village

주 요 어 : 배치, 평면유형, 주거공간, 공간구성, 민가, 왕곡마을

1.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인간생활 가운데 주생활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민가는 규모가 큰 공공건물이나 형태가 화려하고 정교한 종교건물보다 사람의 일상생활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건물들보다 중요할 것이다. 서민들의 집인 민가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와 지리적 특성과 같은 자연적 배경은 물론 생업과 관습까지 담아서 서로 형태를 달리하여 어느 곳, 어느 때나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므로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과 합리적인 정신을 토대로 지어지는 것이 민가이므로 왕곡마을 민가의 배치와 평면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연구대상지인 왕곡마을의 민가는 비록 영동지역의 다른 마을과 중복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왕곡마을 그 자

체로 한정하여 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민가를 대상으로 배치와 평면구성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본다는 것은 주거문화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국가 중요민속자료 235호로 지정된 마을로서 주거지로서의 지속성을 가진 민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정부주도하의 새마을운동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과 같은 각종 사업으로부터 벗어나 주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민가들로 구성된 마을이기도 하며, 또한 강릉 최씨와 양근 함씨의 집성촌으로 곽집 형태의 민가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 인접해 있는 함경도형의 민가들과 조사대상 마을의 이남지역인 강릉지역을 비롯한 삼척지역의 민가들과는 공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주거공간에 대한 선행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왕곡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보고서인 『고성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고성군, 1989.12, 2001.12)』가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왕곡마을 보존계획 수립에 따라 작성된 실측 조사보고서이다. 다음으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에 정재국의 『고성군의

*정회원(주저자), 강원대 공학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전공 교수, 경관자원계획박사

이 논문은 2006년도 강원대학교 캠퍼스간 공동연구비로 연구하였음.

전통건축』에 일부 소개되고 있다. 또한 박경립의 『한국의 건축문화재-강원편(기문당, 1999.09)』이 있다. 이 책은 강원도 건축문화재 전체를 총망라한 책으로, 그 속에 왕곡마을의 민가 일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최장순·최찬환의 『강원영동지역 田자집의 주거공간에 관한 비교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4호, 2000.04)』에 평면유형 및 분포지역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왕곡마을의 민가 일부가 소개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최장순의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7호, 2005.07)』가 있는데, 이 논문은 왕곡마을의 성립과정과 풍수지리, 성씨, 자연지형, 길의 체계, 길과 단위민가, 공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왕곡마을의 전체 민가를 대상으로 각 주호와 실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주거공간의 공간적 질서를 건축문화사적 측면에서 밝혀내는 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이 왕곡마을로 한정하여 그 안의 민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배치 및 평면 구성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을 민가의 배치 및 평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히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 마을 안에 분포되어 있는 민가를 대상으로 주거의 배치 및 평면 구성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에 위치하고 있는 왕곡마을로 한정하였다. 이 마을이 속해있는 영동지역은 과거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산맥을 경계로 교통이 편한 영서지역은 한양과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중앙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험준한 태백산맥은 주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장애요소이자 독자성을 유지하게 만들으로써 영동지역은 중앙의 영향보다는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다. 이런 지형적 사회적 특성으로 그들만의 주거문화가 수대에 걸쳐 거의 변형 없이 꾸려왔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의 기본 배치와 평면 구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조사 내용 및 기간

구분	내용	기간
기초조사	· 문헌을 통한 각 요인들과의 상관성 조사	· 98.3.15-3.29
	· 현지답사를 통한 자료조사	· 06.5.15-6.15
예비조사	· 대상마을 및 주거 방문조사	· 98.4.03-4.28
	· 면담조사	· 06.6.16-7.15
	· 관찰조사	
본 조사	· 마을공동생활 및 생산 활동조사	· 98.7.17-8.28
	· 마을공간구성 및 배치형태 조사	· 06.7.16-9.20
	· 민가실측조사 및 증·개축 사항	
보충조사		· 02.4.05-4.20
		· 02.9.10-9.15
	· 누락되거나 필요한 부분 재조사	· 04.5.22-5.27
		· 06.9.20-10.19

연구대상범위는 이 마을 안에 있는 총 49호의 민가들 중 시멘트블록으로 지은 4호와 멸실된 2호를 제외한 43호의 민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민가는 기존의 민가와 재료의 통일성도 떨어질뿐더러 홑집계열의 민가이거나, 시대적으로도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농촌 개량주택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마을 민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겹집 유형은 함경도에서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에 이르는 겹집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첫째, 관련문헌을 일차적으로 조사 검토하였으며, 둘째, 대상지역에 집중되어있는 43호의 민가를 방문, 촬영, 관찰을 통해 민가의 물리적 공간구성을 파악하고, 셋째,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간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이들 민가도 현대적 생활방식의 이입으로 인한 편리성 추구로 점차 훼손되거나 변형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기존에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이 마을 민가의 배치와 평면 구성 방식 등을 분석하여 이 마을 민가에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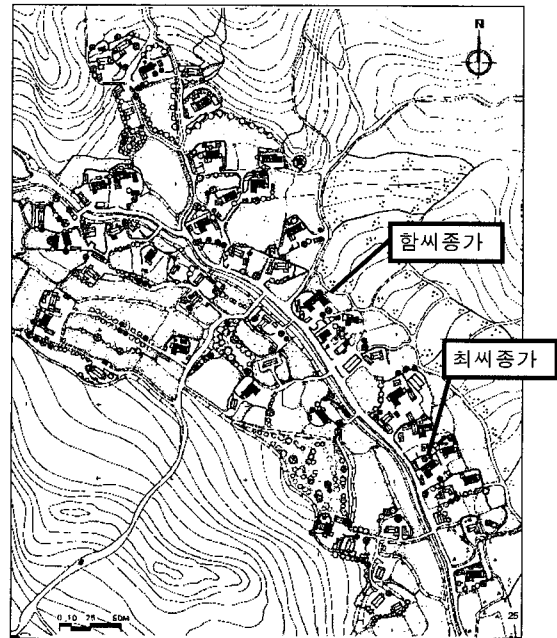


그림 1. 왕곡마을배치도

II. 왕곡마을 개황

이 마을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에 있다. 松池湖의 호반을 끼고 송림에 둘러싸인 마을로 이 마을의 뒤쪽에는 五音山이 있다.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주위의 장현리, 왕곡리, 적동리, 서성리, 탑동리의 5개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와 개 짖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하여 오음산으로 불렀다¹⁾고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산 밑에 仙遊潭이 있어 신선이 여기서 五音六律을 즐겼다고 하

표 1. 대상 민가의 일반사항 및 주거공간

가옥명	추정 건립연대	중·보수 연대	몸체			부속채			전체주거 면적(평)	비고
			당초	증축	면적(평)	당초	증축	면적(평)		
함용균	1910	2000	F,R1,R2,R3,K,K1,S2,C		19.63	R6,S2,S3,S4,T		7.22	26.85	
김유집	1900	1997 2005	F,R1,R2,R3,R5,K,C,S2		20.99	S1,S2,T		1.77	22.76	
함형진	1900	1993	F,R1,R2,R3,K,C		22.83	2S2	Td,S2,C3	8.32	31.15	
이수업	1920	1998	R1,R3,R5,K,C		7.78	S1	Td	0.91	8.69	
함형울	1910	2001	F,R1,R2,R3,K,C		11.49		Td	1.00	12.49	
김세정	1920	2004	F,R1,R2,R3,K,K1,C,S2,S3		18.84		Td	0.43	19.27	
함형갑	1800	2001	F,R1,R2,R5,K,K1	R3,S2,C	13.95	R3,2S2,T,S3,C1	C3	5.76	19.71	
함세균	1920	1992	F,R1,R2,R3,S2,K,K1,S2(C)		16.56		2R6,4S2,C1,Td	8.87	25.43	
함정균	1800	1989	F,F1,R1,R2,R3,K,K1,C,S2,S3		27.44	S2,S4,2R6,F1	S2,Td	13.39	40.83	(현합씨 증증가)
함석영	1929	1991 2005	F,F1,R1,R2,R3,K,S1,S2,C		25.37	B,S2,3R6,3S2,S3, S4,T		24.30	49.67	
함탁영	1929	1994	F,R1,R2,2R3,R4,S1,K,Rn		20.65	S2,T		1.67	22.32	
함형찬	1800	1990	F,2F1,R1,R2,R3,R4,K,K1,S2,C		25.91	R6,R3	Td	6.84	32.75	
함대균	1910	1992	F,R1,R2,R3,K,K1,S2(C),S2		22.70	S2,T	3S2,R6,Td	12.83	35.53	
함형모	1910	1993	F,R1,2R2,R3,R5,K,S2,C		23.27	2S2,2R6	Td	9.70	32.97	
박두현	1920	1997	F,R1,R2,R3,R5,K,K1,C	S2	16.32		2S2,Td	8.28	24.60	
함범균	1900	1996	F,R1,R2,2R3,R5,K	S2	16.61		S2,S3,Td	6.00	22.61	
함문식	1900	1995	F,R1,R2,R3,K,K1,C,S2		18.59		4R6,K1,S2,S4,Td	21.30	39.89	
함병식	1750	1992	F,R1,R2,R3,K,K1,C	S3,R6	19.43		S2,Td	3.72	23.15	(현합씨 대증가)
최현철	1939	-	F,R1,R2,R3,K,K1,S1,S2		13.24	C1,S2,S3,T		3.78	17.02	
최무성	1910	1994	F,2R1,R2,R3,K,C		19.84	3S2,R6,S4,T	3S2,2C1	31.75	51.59	
전윤덕	1930	1992	F,R1,R2,R3,K,K1,S2(C)		21.76		4R6,F1,C2,C4,S2,S3, S4,Td	29.23	50.99	
최대희	1900	1993	F,R1,R2,R3,S2,K,K1,C,2S3	S2	26.04		2S2,R6,Td	7.72	33.76	(현최씨 대증가)
김갑연	1750	1994	F,R1,R2,K,K1,C,S1,S2		16.36	T		0.69	17.05	(당초최씨 대증가)
함석준	1920	2004	F,R1,R2,R3,K,K1	2S2,R6	15.75		3S2,Td	7.95	23.70	
함성식	1920	2004	F,R1,R2,K,C	2S2,S3	17.85		Td	0.86	18.71	
최민희	1800	1998	F,R1,R2,R3,K,K1,C1,S2	S3,2S2,C4	18.23	2C3	S4,Td	10.68	28.91	
함형산	1920	2002	F,R1,R2,R3,K		11.58		S2,C1,Td	7.46	19.04	
함승본	1800	1991 2005	F,R1,R2,R3,K,K1	S2	16.21		2S2,C1,2R6,C4,Td	17.06	33.27	
함성균	1950	2003	F,R1,R2,R3,K,C,S1,S2		16.14		C1,C4,S2,Td	9.97	26.11	
송월봉	1920	1999	F,R1,R2,R3,R5,K,K1,C,S2	S2	16.72		Td	3.43	20.15	
함형필	1880	1998	F,R1,R2,R3,K,K1,C,S1,S2		15.48		2S2,C1,Td	21.51	36.99	
함형준	1959	자가보수	F,R1,R2,K,2S2		13.84		S2,C1,S4,Td	9.06	22.90	
신춘매	1940	2001	F,R1,R2,K,S2	R6	15.10		Td	0.37	15.47	
함치균	1900	2005	F,R1,R2,R3,K,K1,S3,S2(C)	S3	13.80		3S2,C1,Td	12.88	26.68	
함상균	1920	자가보수	F,R1,R2,R3,R5,K	S2	14.40		2S2,C1,Td	8.73	23.13	
김세준	1920	1997	F,R1,R2,R3,S1,K,K1,C	S2,C1	16.25		Td	8.15	24.40	
함호식	1880	1990	F,R1,R2,R3,R5,K,K1,S1,S2,C	S2	24.25	S2,T,R6,S1	C2	14.57	38.82	
전인택	1950	2005	F,R1,R2,K,S2	3S2,B	14.24		3S2,C1,S3,Td	7.07	21.31	
최창손	1800	1995	F,F1,R1,R2,R3,K,S1,S2		23.96		S3,S4,C4,Td	16.61	40.57	
한경자	1920	1990	F,R1,R2,R3,K,K1,C,S1		16.33	2R6	2S2,Td	11.03	27.36	
박선중	1920	1989 2005	F,R1,R2,R3,K,C		17.59	S1,R6	3R6,S2,C1, Td	18.56	36.15	
최종복	1920	1989	F,R1,R2,R3,K,C,S2		11.77	R6,S3,T		6.01	17.78	
윤종덕	1920	2001	F,R1,R2,R3,K,K1,S2,S3	R3	11.71		C1,Td	10.35	22.06	
평균					17.83			9.71	27.54	

F:안마루, F1:윗마루, R1:안방, R2:사랑방, R3:도장방, R4:셋방, R5:옷방, R6:방, K:부엌, K1:사랑부엌, C:외양간, C1:우사, C2:계사, C3:돈사, C4:잡사, S1:뒤주, S2:광, S3:헛간, S4:갯간, S5: 창고, T:재래변소, Td:개량변소, B:욕탕

* R6은 몸체에 있는 방이 아니고, 가족수가 많아짐에 따라 나중에 몸체에 붙어서 또는 별동으로 증축된 방을 의미한다. 또한 C:외양간과 C1:우사의 차이점은 몸체에 있거나 별동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것일 경우는 C:외양간으로,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멘트블록 등으로 필요에 의해 증축되었을 경우는 C1:우사로 표기함.

** ()안의 것은 당초 용도임.

*** 실의 명칭은 가급적 거주자가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적었음.

**** 동일 용도의 실이 많을 경우 기호 앞에 n을 붙임(예: 창고가 2개일 경우 2S3).

***** 건립 및 증수연대는 거주자의 구술에 의한 추정연대임.

***** 함병식(합씨 대증가)씨가 선친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증가가 마을에서 당초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터를 잡았으나, 곡식 운반에 불편하여 마을 아래쪽에 터를 잡았다가, 다시 수해가 염려되어 마을 중간인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함.

영역 유형			
사례 명			
사례 수	3	44	2

*는 공간영역의 변이점(threshold)을 나타낸다.

**자료: 최장순,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7호 통권 201호, 2005.07, 110쪽

그림 2. 공간영역 체계

여 오음산으로 불렸다²⁾고도 한다. 현재 왕곡마을은 오봉1리를 칭한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오봉1리 마을은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북쪽의 威氏마을은 金屋마을로, 아래쪽 崔氏마을은 旺谷마을로 불리어지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이 두 마을을 합하여 통상 왕곡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을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이곳이 은신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兵火不立地의 협소한 盆地로, 해발 200m 이상인 5개의 野山³⁾과 마을 앞에 펼쳐진 하나의 커다란 호수 송지호에 의해 외부와 차단된다.

6.25전쟁 당시 고성군 일대가 최대의 격전지로 동해연안의 7번 국도를 중심으로 彼我間에 밀고 밀리는 ‘툽질작전’으로 국도연변 대부분의 마을이 戰火를 입어 거의 파괴되었는데도 7번 국도에서 불과 1.5 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이 마을은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몇 차례의 기총소사와 폭탄투하가 있었으나 모두 빗나갔으며, 마을 한가운데 투하된 3발의 폭탄도 모두 不發하여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⁴⁾ 1996년 왕곡마을이 속해있는 죽왕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사흘 밤낮동안 인근 읍·면 18개 리(里)를 휩쓸고, 3,834 ha에 달하는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주택 220여 채를 덮쳐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을 때에도, 이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兵火不立地로서의 입지를 주민들은 굳게 믿게 되었다.

또한 背山臨水の 틀을 갖춘 이 마을은 頭伯山에서 松池湖로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어 주위에 농사를 위한 물은 풍부하나 식수는 충분한 편이 못된다. 한때는 여러 개의 우물을 파서 해결하려 하였으나 風水地理說로 본 이 마을의 형국이 배형국(船形)으로 깊이 파면 배가 침몰한다는 전설에 영향을 받아 깊이 파지 못했다⁵⁾고 한다. 지금은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마을 동쪽 입구 국도 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새 마을사업으로 포장도로가 생겨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국도 변에서 서쪽으로 펼쳐진 야산과 넓게 펼쳐진 송지호로 가려져 있어 그 안에 이와 같은 규모의 집촌이 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III. 공간구성

1. 배치형태

생활에 의해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외부공간의 형태 중 마을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길은 다른 공간요소와 달리 연속적인 외부공간이므로 정량적인 단위로 분해 될 수 없지만, 마을 단위로 보면 길은 공적공간으로, 단위민가는 사적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그러나 길과 단위민가와

1)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고성군, 고성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보고서, 2001.12, 17쪽.
 2) 고성문화원, 고성군지, 고성군, 1986.10, 350쪽 참조.
 3) 頭伯山, 拱帽山(骨無峰, 骨美峰), 髀防山, 濟孔山, 湖近山을 일컫음.
 4) 고성군, 앞 책, 16쪽.

5) 고성군, 앞 책, 16쪽.
 6) 주거들의 집합체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장 공적인(most public) 도로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가장 사적인(most private) 주거들 사이에 존재하는(in between) 구불구불한 길로 되어 있다(Christopher Alexander, Sara Ishikawa, Murray Silverstein,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195쪽).

표 2. 기본 평면유형 및 특징

구분	기본 평면유형	가구수	특징
안마루있는 一字形 접집	<p>외양간 별동형</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 · 안방 영역은 후면에 배치되고, 사랑방 영역은 전면에 배치됨. · 부엌 부뚜막이 안방 쪽에 있어 부엌에서의 안방 출입은 안마루를 통해서 진입하거나 부엌 뒷문을 통해 뒤뜰에서 안방으로 진입함. · 부엌과 안마루 사이에 벽이 없음. · 부엌 벽에 벽장이나 찬장이 설치됨. · 측간이 몸채와 떨어져 있음. · 부엌의 중인방 하부벽체는 판벽임. · 사랑방 옆에 사랑부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부엌을 거쳐 부엌 뒷문을 통해 뒤뜰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안마루있는 ㄱ字形 접집	<p>외양간 돌출형</p>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항 · 一자형일 경우 외양간이 별동으로 독립되지만 부엌 가까이에 설치됨. · ㄱ자형일 경우 외양간이 부엌 앞에 돌출함. · ㄱ자형일 경우 외양간의 구유가 부엌에 직접 면함. · ㄱ자형일 경우 외양간 상부에 소다락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 민가의 마당에 담장이 설치되었을 경우는 사적(private)영역의 성격이, 일부 담장으로 차폐가 되었을 경우 반사적(semi-private)영역의 성격이, 자연지형을 이용하거나 수목 등을 식재하였을 경우는 반공적(semi-public)영역의 성격이 나타남에 따라 마당에서의 공간영역 체계는 담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변이점의 위치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음⁷⁾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변이점이라 함은 주거 내에서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여유를 줌으로써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또한 변이점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길과 대지, 담장의 설치 여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프라이버시와 안정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공적영역인 안길이나 샅길에 접한 앞마당은 곡식건조 및 탈곡, 타작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앞마당 한쪽은 소나 염소 등 가축을 매어 두는 공간으로서, 두엄이나 퇴비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수장 공간으로서, 잔치나 초상 등 큰일을 치루는 공간으로서, 어린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앞마당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둘러치지도 않았으며, 대문을 달지도 않았다. 수목이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있어 반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앞마당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든 것은 이 마을이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의 동족마을로 서로 한 가족이

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마을 민가의 뒷마당인 뒤뜰은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담장을 쌓아 花階를 만들고, 이곳에 한데부엌이나 장독대를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뒤뜰에는 반드시 흙담이나 돌담으로 둘러쌌었다. 이 담장은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외부와 확실한 경계가 되도록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뒤뜰과 앞마당과의 사이에는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일각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들 담장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오르내리기도 하고, 곡선으로 휘감아 돌기도 한다. 여성들만의 공간인 뒤뜰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담장을 어른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쌓아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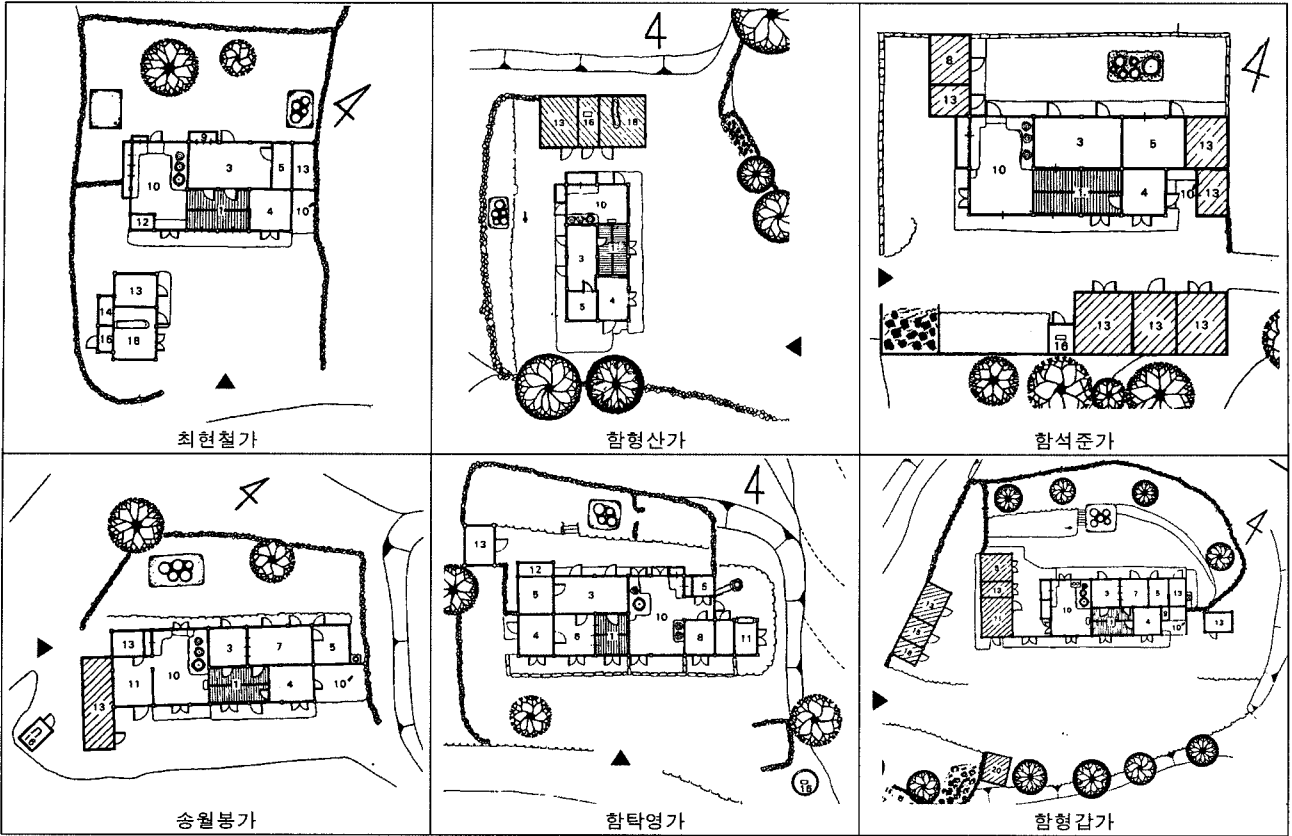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마을 민가의 외부공간은 안마당이 없이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앞마당은 담장을 쌓는 대신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뒷마당은 눈높이를 벗어난 높이 이상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완전히 폐쇄시켜 사적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뒷마당에 이르려면 반드시 정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동지역 민가는 울타리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간영역 체계는 공적 영역-반사적 영역 또는 반공적 영역-사적 영역 체계로 나타나는데⁸⁾ 반해, 이 마을 민가의 길과 민가와의 공간영역 체계는 영동지역의 일반적 공간영역 체계와는 다른 공적 영역-반공적 영역-사적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 마을 민가에서 가장 많은 사례 수(<그림 2> 44/49, 89.79%)를 보여주는 두 번째의 경우, 주거 내에서 담장이 뒷마당에는 설치되고 앞마당에는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남녀유별이 현존하던 당시 뒷마당은 여성들의

7) 공간영역의 변이점(threshold)을 한정하는 장치들은 다양할뿐더러 변이점 자체는 전체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생긴다. 그 이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의 필요성과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소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방어체계에 기인한다(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80-81쪽).

8) 최장순·정구용, 영동지역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1호, 통권 169호, 2002.11, 71-72쪽.



*빗금 친 부분은 나중에 증축된 부분임.
 **1. 안마루 2. 뒷마루 3. 안방 4. 사랑방 5. 도장(방) 6. 셋방 7. 옷방 8. 방 9. 벽장 10. 부엌 10' 사랑부엌 11. 외양간 12. 뒤주 13. 광 14. 헛간 15. 젓간 16. 변소 (이하 같다.)
 ***자료: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고성군,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1989.12

그림 3. 안마루 있는 一자형 겹집 사례

공간이기에 담장을 쌓고, 앞마당은 함씨와 최씨의 동족마을이므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해서⁹⁾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평면 유형 및 구성

1) 평면유형

조사대상 43호의 민가들 중 1호만 홑집이고, 나머지 42호는 겹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홑집 1호를 제외한 겹집을 대상으로 외양간이 돌출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一자형이나 ㄱ자형이나에 따라서 왕곡마을 민가의 유형분류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표 2>의 2개 기본 평면유형과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2) 평면구성

홑집은 조사대상에서 1호이므로 이를 제외한 一자형과 ㄱ자형 겹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몸체의 주요 공간은 부엌과 외양간, 안방, 옷방, 도장, 안마루, 사랑방, 사랑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평균면적이

17.83평이다. 부속체의 주요공간은 과거 가족수가 많았을 때 설치되었던 방과 수납공간 역할을 하는 광·헛간·창고, 가족숙육공간인 우사·계사·돈사·잠사, 가족위생공간인 변소·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면적이 9.71평이다. 각 민가의 몸체와 부속체를 합한 면적은 평균 27.54평으로 마을을 구성하는 민가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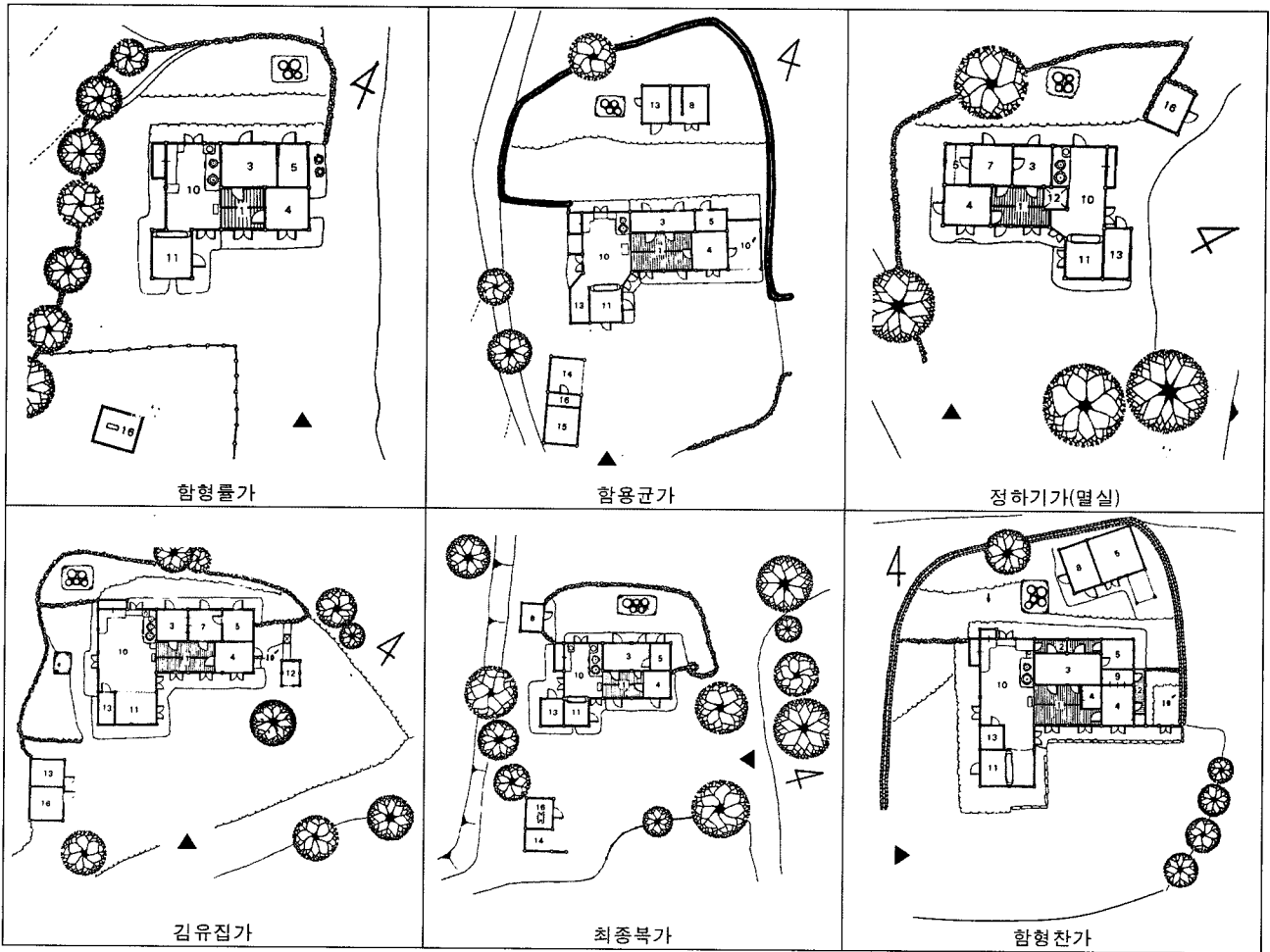
평면의 구성은 부엌을 기점으로 전면에 안마루 1칸과 아랫사랑, 윗사랑이, 후면에는 안방과 옷방, 도장방이 놓여 있다. 그러나 안마루가 2칸이 될 경우 전면에는 안마루 2칸과 사랑방이, 후면에 안방·옷방·도장(또는 뒷사랑) 순으로 배치된다.

‘一자형 겹집’의 경우 ‘ㄱ자형 겹집’과 달리 내부에 외양간을 두기보다는 별동으로 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엌을 출입 공간으로 하여 폐쇄적인 안마루에서 안방과 사랑방이 각각 연결된다. 즉 안방과 사랑방은 한 칸 내지 두 칸의 안마루로 인해 격리되어 있다. 또한 남성공간인 사랑방은 외부에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공간인 안방은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안마루는 장마루 널로 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70 cm

9) 양 집안 사이에 통혼이 많았다(강원대학교 · 고성군, 앞 책, 2001.12, 48쪽)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족마을로서 서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고성군,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1989.12

그림 4. 안마루 있는 ㄱ자형 겹집 사례

정도 떨어져 통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1.5칸 내지 2칸 안마루가 전체의 95.34%(41/43)를 차지해 주거에서 안마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안마루는 부엌을 비롯한 안방과 사랑방을 실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서, 안방과 사랑방과의 거리를 두어 상호의 기밀성을 보장해 주는 공간으로서 가족의 거실·식사·휴식·작업 등으로 이용되는 다목적 공간으로 쓰인다.

부엌과 안마루 사이는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대신 안마루 전면은 다른 방의 외벽과 같이 檑로 엮어 안팎에서 진흙으로 맞벽치기하여 만든 土壁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엌과 외양간, 안마루는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부엌의 불 아궁이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외양간과 안마루까지에도 자연대류 시킴으로써 겨울철 외양간의 가축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차가운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 효과를 얻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방의 천정은 고미반자로 되어 있다. 안마루의 천정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장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고미반자나 널반자로 만들어 그 위에 더러 다락을

들어서 수장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부엌과 외양간의 천정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를 취한다. 또한 안마루 밑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고 닫게끔 여담이로 되어 있었다¹⁰⁾고 하며, 안마루는 축조 당시에 土床 즉 봉당이었던 것을 안마루로 개량한 집도 있다. 함형찬씨에 의하면, 본디부터 대부분의 민가에 마루가 있었지만, 몇몇 민가에서는 마루 대신 토상으로 된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공간은 요즈음에는 거의 사라진 명칭이지만 봉당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마을의 노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택 공간이다. 이 마을 근처의 민가들 중에는 아직도 이 봉당을 마루로 바꾸지 않고 토상이었던 것을 시멘트바닥으로 바꾼 채 남아있는 민가가 아직도 남아있다.¹¹⁾ 이 봉당을 안마루로 바꾼 것은 대개 일제 중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이는 영세한 살림집에서 안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므로 임시적인 흙바닥으로 만들었다가 그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에 따

10)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의 최대회씨에 의하면 안마루 밑에 집안에서 쓰는 각종 생활도구들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11)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박순용씨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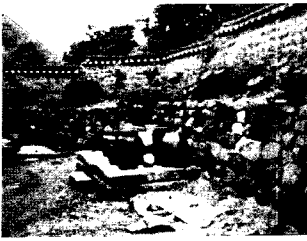


그림 5. 기와지붕 뒤꼍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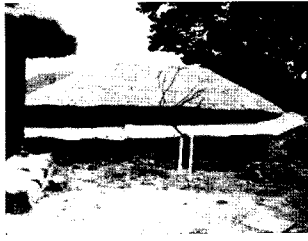


그림 6. 초가지붕 뒤꼍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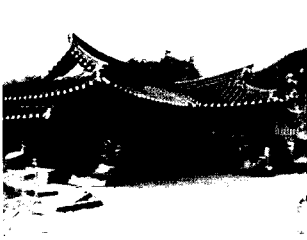


그림 7. 기와지붕(외양간:팔작지붕)



그림 8. 기와지붕(외양간:외쪽지붕)



그림 9. 돌너와지붕



그림 10. 초가지붕(외양간:외쪽지붕)



그림 11. 기와지붕 사랑부엌



그림 12. 초가지붕 사랑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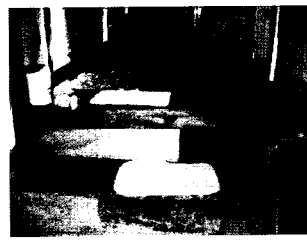


그림 13. 안마루



그림 14. 니란히고래



그림 15. 처미와 굴뚝 사이의 연도



그림 16. 굴뚝

라 안마루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토상의 봉당은 함경도형의 정주간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은 부엌과 붙어있는 넓은 부뚜막 모양의 공간으로 부엌과는 벽이 없이 바닥차이로만 구별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흔들바닥이 되어 있어 온 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여자들이 손님을 맞기도 하는 등 오늘날 주택의 거실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¹²⁾ 반면에 고성지방에서 볼 수 있는 봉당은 오히려 부엌과 다른 방들을 실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적 기능과 여름철 실내작업 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이한 것은 안마루와 사랑방에는 외부로 통하는 띠살문이 있으나 이것은 출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겨울철 출입은 주로 외부에 나있는 띠살문보다는 부엌널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뜰 위에는 방으로 용이하게 드나들게 하는 섬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문지방도 높아 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엌 쪽에서 안마루로 쉽게 올라가도록 나무계단이나 디딤목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거주자들은 부엌널문을 통하여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 찬바람이 바깥 출입구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몸채 후면에는 안방·옷방·도장방 순으로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안방과 옷방을 터서 통칸(장칸)으로 넓게 쓰고 있으며, 도장방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외지에서 오거나 하면 기거하는 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안방의 난방을 위해서 부엌의 각 불아궁이와 굴뚝 사이의 구들바닥은 나란히고래로 만들어 불기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쉽게 배연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굴뚝은 사랑방 후면 측면에 배치되었다. 사랑방의 난방은 사랑부엌의 불아궁이와 굴뚝이 같은 면에 배치되어 있고, 별도로 구들을 덥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구들이 나란히고래이지만 개자리가 아궁이가 없는 세 벽면하부로 돌아가며 설치되어 안방 고래와 연결되어 있다. 즉 안방 고래는 연도와 곧 바로 연결되어 아궁이와 직선으로 나란히고래가 설치되고, 사랑방 고래 역시 나란히고래인데 안방 연도 쪽에 붙여서 함께 설치됨에 따라 안방고래와 사랑방고래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꺾여서 연도와 연결된다. 이에 따라 굴뚝은 하나이지만 구들과 굴뚝을 연결하는 연도가 넓다. 굴뚝의 하부는 넓게 그리고 굴뚝의 높이도 배연이 잘 되도록 유달리 높게 되어 있다. 연도와 굴뚝과의 거리가 2~3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빗물에 젖지 않도록 연도 위에 기와를 얹었다. 굴뚝의 재료는 기와 편과 흙을 번갈아 가며 층층이 쌓아 매우 운치 있다.

수납공간으로 뒤주, 광, 헛간 등이 있다. 뒤주는 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공간으로 다양한 위치, 즉 부엌·도장방·뒤안·안마루·툇마루·사랑방 측면마당 등에 설치되었다.

12)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4.10, 122쪽.

광과 햇간은 집안에서 쓰는 각종 도구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안마루 위의 고미다락은 집안에서 큰일이 있을 때 떡이나 음식을 보관하거나 집안에서 쓰는 각종 도구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쓰인다. 외양간 위의 소다락은 콩깍지 등 소여물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측간은 대개 앞마당 한쪽 측면에 있는 거름더미 근처에 설치되었다. 그 이유는 측간에서 나오는 인분을 거름과 섞어서 농사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면유형이 1자형인 경우, 돌출부분에 외양간이 설치되어 구유가 부엌에 직접 면하게 함으로서 부엌에서 직접 끓인 여물을 줄 수 있도록 동선 단축을 도모하였다.

외양간의 지붕형태를 보면, 안채 지붕 물매를 그대로 이어서 낮은 외쪽지붕 형태를 보이는 민가가 대부분(25호, 75.8%)이다. 외양간 지붕이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이는 일부(8호, 24.2%) 민가는 지붕 용마루선의 흐름이 외양간 상부에서 낮게 되는데, 이는 외양간 부분이 전체 대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설치되어 몸채지붕에 비해서 외양간 지붕이 낮게 구성된다. 그리고 외양간은 몸채 공간에 비하여 폭이 작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외양간이 크면 소가 집을 끌고 나가므로 집의 기운이 쇠해 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몸채보다 작게 만든다고 한다.

1자형보다 1자형의 돌출 민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영동지역 특유의 지형적·기후적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북서풍보다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의 영향을 또한 산에서 불어오는 골바람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둘째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낮은 외부 사람이 마을 안길로 진입할 때 곧바로 민가의 앞마당이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셋째는, 지형상 계곡 양측에 민가가 위치함으로 대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외양간을 배치하여 외양간의 오물배수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넷째는 기존 벽체에 덧붙여 증축함으로써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보다 재료 면에서 경제적으로 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섯째는, 별동으로 짓는 것보다 외양간이나 햇간 등 부속사 공간을 몸체에 집중시켜 앞마당을 넓게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1자형으로 축조하는 것이 1자형으로 축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왕곡마을의 민가를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배치와 평면구성 상의 특이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주거사의 실 구성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남방계적인 공간구성요소인 마루가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안마루의 형태로 주거공간 속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마

을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사적 측면에서 영동지역의 다른 민가들과 비교해 보면, 주거 내부의 안마루 유무와 외양간 유무에 따라 ‘안마루 있는 1자형 겹집’은 ‘외양간 별동형’으로, ‘안마루 있는 1자형 겹집’은 ‘외양간 돌출형’으로 평면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3) 북동풍과 해풍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외부 사람이 마을 안길로 진입할 때 곧바로 민가의 앞마당이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고자하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대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외양간을 배치하여 외양간의 오물 처리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재료 면에서 경제적으로 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별동으로 짓는 것보다 외양간 등 각종 부속사 공간을 몸체에 집중시킴으로써 앞마당을 넓게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1자형 겹집’으로 축조하는 것이 ‘1자형 겹집’으로 축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었기에 ‘1자형 겹집’보다 ‘1자형 겹집’의 민가가 많이 축조되었다.

4) 민가의 길과 주거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뒤꼍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사적영역이, 앞마당은 자연지형을 이용하거나 수목 등을 식재하여 반공적영역의 공간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길에서 뒤꼍에 이르는 공간영역 체계는 공적영역-반공적영역-사적영역으로 나타난다.

5) 각 민가의 건립연대는 크게 256년(1750년) 전부터 47년(1959년) 전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의 민가는 86~206년 전(1800년과 1920년대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초 몸채(평균 17.83평)는 소규모로 지어졌지만,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경제수준의 향상 그리고 현대적 생활양식의 이입에 따른 거주자의 요구로 부속채를 중심으로 한 증축(평균 27.54평)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6) 뒤꼍의 담장은 여성들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방 측면까지 담장을 내쌓아 막고, 사랑방 측면 담장 상부에 외쪽지붕을 얹어 사랑부엌에 눈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였다.

7) 앞마당은 이웃에게 개방되어 있는데 비해, 뒤꼍은 담장으로 둘러싸아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은 축조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그대로 주거에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8) 곡식을 보관하는 뒤주의 설치위치는 주로 몸채 내부의 부엌이나 도장방, 안마루, 뒷마루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동으로 부속채로 마당이나 뒤꼍에 설치되어 그 설치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1994),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1989, 2001), 고성군,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3.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4. 김봉렬(1994), 한국의 건축 전통건축편, 공간사, p. 80.
5. 박경립(1999), 한국의 건축문화재-강원편, 기문당.

6. 유승용 · 박경립(1984), 강원도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7. 신영훈(1996),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미술선서, 37.
8. 윤영환 · 이기의 · 박봉수 · 조현길(1990), 한국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민가정원양식-왕곡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8(2).
9. 조성기 · 지호경(1986, 1987),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 (I ·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 최장순(2001),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최장순 · 최찬환(2000), 강원영동지역 田자집의 주거공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4), 통권 138호.
12. 최장순(2005),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7), 통권 201호.
13. Amos Rapoport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4. Christopher Alexander, Sara Ishikawa, Murray Silverstein (1977)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接受: 2005. 11. 14)